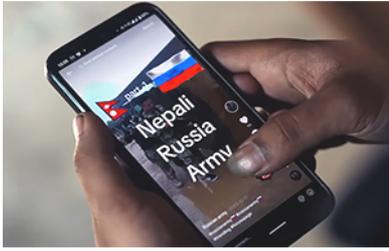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도다”
러시아군에 가담한 네팔 출신 용병 집단 탈영**



러시아군에 가담한 네팔 출신 용병들이 집단 탈영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정보총국(GUR)이 1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자체 입수했다는 러시아군 내부 문서를 근거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루한스크 지역에 주둔한 29328부대 소속 네팔인 병사 수십 명이 최근 진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서에는 40여 명의 이등병 이름이 적혔다고 덧붙였다. 정보총국은 “네팔 용병들은 러시아인 야전 지휘관의 잔인한 ‘고기 분쇄기’ 작전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자 탈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임의 처형하거나 사망 시 약속했던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일도 많아 불만이 크지만, 러시아 지휘관들은 작년 11월 네팔 강진 때문에 용병들이 귀국하려 한다는 식으로 변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탈영병을 추적하고 있으나 검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2월 네팔 정부는 러시아군에 입대한 자국민 6명이 전사했다며 러시아 정부에 용병 고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네팔 정부는 러시아에 이들 6명의 시신을 즉각 돌려보내고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요청했다. 인신매매 업자들은 점점 더 많은 네팔 청년을 러시아군에 입대시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네팔 청년 150-200명을 러시아로 넘긴 일당 12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러시아에 입국하는 대가로 1인당 9천 달러(약 1천 200만 원)를 받은 뒤 러시아군에 입대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청년 중 상당수는 업자로부터 러시아 시민권을 속성으로 취득하거나 자국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안 받았다.

러시아군에 입대했다가 전사한 네팔인 남성 루팍 카르키는 학생 비자로 러시아로 간 경우다. 그는 러시아에서 시민권과 더 많은 월급을 받기를 기대하며 군대에 입대했다고 카르키의 유족은 밝혔다. 카르키는 가족들에게 6개월짜리 훈련 과정에 들어간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빨리 군에 배치돼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네팔 외무부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네팔인 200명 이상이 러시아군에 입대한 것으로 집계했다(출처: 연합뉴스 종합).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와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여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오리로다(시편 11:4-5,7)

하나님, 러시아군의 잔인한 작전으로 죽음에 내몰린 네팔 출신 용병들의 탈영 소식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오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살길을 열어 주십시오. 네팔 용병뿐 아니라 전쟁에 참여한 모든 현장에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하여 주셔서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모든 인생을 통촉하시는 주께로 피하게 하옵소서. 전쟁을 계속하는 러시아와 탐심과 악한 정욕으로 불의한 재물을 챙기는 인신매매 업자들을 책망하사 의로우신 주님 앞에 떨게 하시고 거짓과 악행이 끊어져 주의 법을 사모하는 정직한 자로 회복하여 주소서.

▲ 연합감리교회 아프리카, 동성결혼 허용 결정에 비판·교단 탈퇴 선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총회에 참석한 아프리카 대표단이 동성결혼 주례와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교단 결정을 비판했다고 3일 크리스천포스트가 전했다. 지난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동성결혼 주례 및 엘지비티(LGBT) 옹호 단체에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2일 최고 입법 기관인 총회는 523 대 161의 표결로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 교리와 양립할 수 없다”는 사회생활 원칙 문구를 삭제했다. 이 문구는 1972년에 추가됐으며, 이번 표결로 52년 만에 폐기됐다. 이에 아프리카 대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결혼과 성 윤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공식적으로 부정하는 교단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교단 탈퇴를 선언했다. 연합감리교회는 1일 총회에서 대의원 692명의 압도적 찬성과 51명의 반대로 동성애자 목사안수 금지 규정을 삭제하기로 가결했다. 성경적 성 윤리를 지지하는 교회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7,500개 이상이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형제들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갈라디아서 1:4,11-12)

하나님, 아프리카 대의원들이 교단 탈퇴로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행보를 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욱 아버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여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미국 연합감리교회를 꾸짖어 주시고 이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마저 교란하여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불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진리가 승리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서울퀴어행사, 장소 바뀐 6월 개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제2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퀴어퍼레이드를 6월 1일 서울 중구 을지로입구역 주변 남대문로와 종로구 종각역 인근 우정국로 일대에서 한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구체적인 경로는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언론들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외에도 토론회·강연회를 위한 서울역사박물관 등의 장소 대관도 연달아 거부했다. 퀴어 행사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첨예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에서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디모데전서 6:3,5-6)

하나님, 퀴어행사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행사를 강행하고 있는 조직위원을 다스려 주시고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마음이 부패해진 죄인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때 더욱 밝히 드러나야 할 십자가 복음이 교회를 통해 분명히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일어나 이 땅에 거룩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감옥에 수감된 목회자 건강 악화...가족이 기도 요청



쿠바의 복음주의 목사이자 정치범인 로렌조 로살레스 파하르도(Lorenzo Rosales Fajardo)가 쿠바 산티아고 데 쿠바 지방의 보안이 최고 수준인 보니아토(Boniato) 교도소에서 건강 악화 상태에 있다며 가족들이 기도를 요청했다고 27일 워싱턴스탠드가 전했다.

로살레스 파하르도의 아내, 마리딜레니스 카라발로(Maridilegnis Caraballo) 사모는 “지난 며칠 동안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았다. 신장 때문인 것 같고 물도 적게 마시고 햇빛 아래서 일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카라발로 사모는 최고 수준의 엄격한 규율 아래에서 복역 중인 남편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다.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는 2021년 7월 11일 쿠바 산티아고 데 쿠바의 팔라 소리아노(Palma Soriano)에서 열린 사회주의 반대 평화 시위(쿠바에서는 ‘11’로 알려짐)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공격, 모욕,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았다.

카라발로 사모는 2022년 12월 쿠바 인권 관측소에 “한 감옥에 적응할 때면 그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위험한 살인자들 사이에 놓여있고 열악한 위생 상태로 인해 빈대와 같은 벌레들에게 물린다”며 남편에 대한 “무자비한 박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모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깊은 우울증과 “머리와 온몸에 발진이 나타나는 등” 눈에 보이는 신체적 반응을 일으켰다고 말했다.

로살레스 파하르도 목사는 이전에 합법적인 열린성서교회의 감독자였으나 쿠바 공산당 종교국의 압력으로 인해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정권에 등록되지 않은 몬테 데 시온 교회(Monte de Sion Church)의 목사로 있었다. 2021년 로살레스 파하르도의 구금에 대한 초기 보도에 따르면 그는 군부에 의해 고문과 굴욕을 당했으며, 수사관은 그가 의식을 잃을 정도로 구타한 후 그의 몸에 소변을 흘렸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유엔 특별보고관 5명이 쿠바 수도 하바나에 보낸 서한에 서명하면서 그의 사건과 수감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은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사회주의 반대 평화 시위 기간과 그 이후에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종교 집단 지도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이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디모데후서 2:24-26)

하나님, 군부의 무자비한 박해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염려되는 파하르도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지켜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십시오. 오랜 시간 독재로 인해 자유와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들이 주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목사님과 지도자들이 속히 풀려나도록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쿠바에서 가장 탄압받는 복음주의자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이들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여 이 땅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태국, 대마 합법화 2년여 만에 다시 마약류에 포함시키기로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이 2년여 만에 대마의 마약류 재지정을 추진한다. 방콕포스트 등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타 타워신 태국 총리는 전날 보건부에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통제 하에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향락용 사용은 금지된다. 세타 총리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보건부가 대마를 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를 바란다”며 “의료용만 허용하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꿔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락 목적 대마 사용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에 이보다 더 강도를 높여 아예 대마 합법화를 취소하기로 했다. 세타 총리는 마약 퇴치를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지난해 마약퇴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데살로니가전서 5:6,8)

하나님, 영과 육을 중독으로 상하게 하는 대마초 합법화가 다시 취소되어 감사드리고 법적제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국 정부에 지혜로운 마음과 양심을 주옵소서. 이 일이 다른 국가에 경각심을 주어 세상 풍조와 이익을 좇지 않도록 깨워 주시고, 대마뿐 아니라 동성결혼과 성을 상품화하는 태국의 불법이 사라질 수 있도록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어, 영적 추수를 위해 전심을 다 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축복하사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땅 구석구석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 인도, 청년들 속여 러 전쟁터로 보낸 일당 체포

인도에서 청년들에게 해외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고 속여 러시아로 보내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도록 한 일당 4명이 당국에 체포됐다고 현지 매체를 인용, 연합뉴스가 8일 전했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번역가와 비자 발급 대행과 항공권 예약 담당, 모집책 2명 등 4명을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번역가는 러시아에 체류하며 인도인 군인 모집 조직과 연계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아 지원한 청년들은 러시아에서 소탕 등 무기 사용법을 배운 뒤 우크라이나로 보내졌다. 앞서 CBI는 인도 청년 약 35명이 이런 방식으로 속아 넘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 최소한 2명의 인도 청년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 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예레미야 18:7-8)

하나님, 전쟁을 위해 용병을 계속 모집하는 과정 가운데 거짓과 불법이 난무하여 결국 전쟁의 참혹한 현장 속에 서야 하는 해외 용병들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전쟁을 향한 무서운 집념으로 거짓과 불법을 행하는 러시아를 꾸짖어주시고 모든 터를 파괴하고 영혼을 죽이는 분쟁으로 탐심을 부추기는 거짓의 아버 사탄을 멸하시어, 인도 청년들이 세상의 성공과 재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도록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복음으로 베푸신 주의 구원을 모두가 받게 하옵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시며 구원하소서”
멕시코 이달고 기독교인들, 종교적 박해로 고향 떠나



멕시코 동부에 위치한 이달고 주(州)의 기독교인들이 종교적 박해로 고향을 떠나고 있다. 에반젤리컬포커스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이달고 주의 코아밀라와 란초 누에보 (Coamila and Rancho Nuevo)에 있는 라 그란 코미시온(La Gran Comisión) 침례 교회 소속 복음주의자 약 100명이 고향을 떠났다.

이 교회 성도들은 그들에게 점점 더 심해지는 종교적 박해 속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이달고 지방 자치 단체장을 찾아갔다. 이들은 다른 복음주의 교회 성도들로부터 피난처를 구하고 응급처치 지원을 받고, 당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이달고의 주도에 머물 계획이었다.

가장 최근의 위기는 지난 3월 25일 로겔리오 에르난데스 발타자르(Rogelio Hernández Baltazar) 목사와 다른 두 명의 성도가 코아밀라(Coamila) 대표단에 의해 구금되면서 시작됐다. 지역사회 대표가 진행한 48시간의 협상 끝에 그들은 합의에 도달하고 석방됐다.

그러나 4월 초, 코아밀라 주민들은 서명된 합의문을 무시하고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소유한 다섯 곳의 농장에 침입해 농작물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고 돌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3채의 집은 울타리를 쳐서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신자들은 여러 차례 신체적 공격을 받았다.

심지어 주민들은 마체테 칼을 들고 거의 매일 밤 발타자르 목사의 집 문을 부수려고 시도했다. 4월 25일, 코아밀라와 란초 누에보 주민들은 모든 복음주의 가정에 대한 전기 공급을 차단했다. 또한, 일부 교회를 약탈하고 입구에 경비원을 배치했다. 결국 성도들은 끊임없는 위협과 통신의 단절로 자신의 집과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종교적 공격은 2016년부터 시작됐다. 대다수가 전통적인 로마 가톨릭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사회자선 사업 프로젝트에 기여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묘지 접근, 자녀의 학교 출석, 우물 사용, 정부 혜택, 교통권, 농사 및 토지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체계적으로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심각한 물리적 공격을 받았다.

이달고 주의 복음주의 신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관계 당국에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종교적 박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비난했다(출처: 복음기도신문 종합).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시편 109:26-27)

하나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조차 어려울 만큼 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멕시코 성도들을 도우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교회로 굳게 세우소서. 누구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래서 더욱 주님만 바라는 교회에게 도우시는 주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친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거절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돌이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바라며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하소서.

▲ 덴마크, 낙태법 임신 12주→18주 확대...15세도 부모 동의 없이 낙태 가능

덴마크가 낙태 허용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8주로 확대하고, 15-17세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도 낙태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덴마크 보건부는 기존 임신 12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했던 건 낙태법이 처음 제정된 1973년엔 12주 이후 낙태를 하는 경우 합병증 위험이 컸기 때문이지만 이후 51년이나 지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반이민 정당의 메테 티센 의원은 “끔찍한 날”이라며 “끔찍한 새 법이다”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AP통신은 낙태는 미국에서 매우 논쟁적인 이슈이지만, 유럽에서는 광범위하게 합법적 행위라고 전했다.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잠언 21:8,15-16)

하나님, 현실에 맞는 법 개정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한다는 구부러진 판단으로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 낙태까지 허용하는 끔찍한 새 법을 통과시킨 덴마크를 꾸짖어 주십시오. 정의를 행하며 거룩한 다음세대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할 기독교 국가가 진리의 명철을 떠나고, 패망의 길로 끌고 가는 죄와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파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 한 번 복음의 빛을 비취 주시고 완전한 돌이킴의 회개로 인해 구원의 기회를 얻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 삼아주소서.

▲ 북 주민들, 北中間 탈북민 북송 협의 공포...“중국, 모두 잡아 북송할 것”

함경북도 보위국과 안전국에 현재 중국 감옥에 갇혀 있는 탈북민 북송에 관한 북한과 중국 간의 협의 결정 내용을 중앙의 지시로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주민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데일리NK가 최근 전했다. 소식통은 이는 국경의 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침투시켜 공포를 조성하라는 지시라며 지시문의 핵심은 ‘중국으로 비법월경자들을 모두 잡아내 조선(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사업을 강화하기로 합의 결정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여기에 ‘중국은 비법월경자들이 중국에 발붙일 틈을 주지 않고 모두 잡아서 조선으로 되돌려 보낼 것이다’, ‘이전과 달리 독 안에 든 신세가 된 비법월경자들은 이제 괴뢰(남한)로 가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며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시편 69:13-14)

하나님, 주민들의 굶주림과 아픔을 돌보기보다 포악과 압제로 상황을 잠재우려는 어리석은 북한을 책망하시고 자국의 유익을 위해 협력하는 중국을 다스려 주소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의 위기에 놓인 탈북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노골적인 공포 분위기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이 깊은 수렁에서 건지실 주께 엎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얻으며 인생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므로 인해 북한에 복음이 더욱 힘 있게 전파되게 하옵소서.